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본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11. 10 ~ 2024. 11. 30 제308호

미 대선, 성경적 가치관 따라 후보 평가해야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RC) 회장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완벽하지 않으며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시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매체 워싱턴 스탠드 편집장이기도 한 퍼킨스는 성경에 기반한 가치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며 특히 생명 존중, 결혼, 남성과 여성의 구별 등 성경적 원칙이 정책에 반영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사회의 정의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에 기독교인이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충실한 증인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 참여는 전 세계 사

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며, 국가의 결정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독교인의 궁극적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결과가 어떻든 감사하며,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 사이트 TV(Traditional Value) 넥스트는 '투표와 크리스천 신앙 실천 관계와 이해'라는 칼럼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수호하는 검증된 후보자들을 뽑아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들의 지난 정책 전력,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성경적이었는지, 이들이 속한 당에게 재정후원자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는 △성경적 정체성 회복(트랜

스젠더, 학생들의 성전환 반대) △결혼 정의 회복 △생명의 존엄성 회복(낙태 반대) △기독교 신앙의 자유 회복(기독교 언론 차별 법안 수정·폐지 요구) △국가 보안 강화(국경으로 넘어오는 범죄자로 인한 피해 정책 요구) △미 헌법을 헌법대로 지키기 등을 들었다.

FRC가 정리한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비교 표에 따르면 △태아 생명존중에 대해 트럼프 찬성/해리스 반대 △세금으로 낙태 지원은 트럼프 반대/해리스 찬성 △사업자의 신앙 존중에 대해 트럼프 찬성/해리스 반대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는 트럼프 반대/해리스 찬성 △세금으로 성전환 수술 지원은 트럼프 반대/해리스 찬성 등으로 나타났다.

[GPNEWS]



조평세 박사 (1776연구소 대표)

기독교 가치관의 보수주의 깃발을 들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어린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인도로 떠난 이후 청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조평세 박사. 그는 유학 기간 중 북한 주민들의 처참

한 삶의 실상을 깨닫고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의 시간과 현재 청년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본지는 그 순종의 시간들

을,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열리기 직전, 연합예배 청년위원장으로서 섬기는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극동방송사에서 만나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91)

불신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후로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브람'과 '사레'라 하는 부부가 있었다.

아브람의 고향은 바벨의 남쪽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갔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창세기 12:1,4 KLB)

이 여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지도책도, 안내하는 여행사도 없었다. 더욱이 아브람은 이 여행의 목적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브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이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로 하

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신의 죄를 가리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 제사는 아브람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죽음이 필요함을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벨과 노아 등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그랬듯이, 아브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 음의 네 가지 약속(창세기 12:2-3)을 하셨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아브람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게다가 아내 사래는 출산 적령기를 한참 지난 나이였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네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었

는데, 사실 이 약속은 앞으로 보내주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은 아브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그는 오실 그 구원자를 바라보는 생각만으로도 기뻐했다고 한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젓가락질 하는 인도 소녀들을 보며 떠올리는 단상



▲ 한국 컵라면을 먹고 있는 인도 소녀들. WMM 제공

한국의 컵라면은 인도에서도 인기가 많다. 한국에서 온 아웃리치팀의 선물이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도인들이 라면은 젓가락질로 먹는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 어려운 젓가락질도 기필코 하게 하는 것이 K라면의 힘일까? 절로 미소가 피어진다.

젓가락질 정도야 라면을 먹고 싶은 열망으로 작정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습하면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

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된 그 열망은 도대체 어떤 정도의 크기인 걸까? 그것도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게다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더럽고 죄투성이라도 모자라 이 땅에 온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존재를 위한 열망의 깊이와 너비와 두께는 얼마나 될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

로는 이해할 수 없다. 설명도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랑이 믿어져 누릴 뿐이다. 그 사랑이 깨달아진 자들은 자기 죄의 본성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른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자기의 열망이 된 사람들이다. 그 열망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GPNEWS]

美 교도소, 복음 들은 재소자 120명 예수님 영접

미국 라스베이거스 최대 보안 교도소에서 100여 명의 재소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CBN뉴스가 지난달 21일 전했다.

교도소 사역 단체 ‘감옥 뒤의 하나님(God Behind Bars, 이하 GBB)’은 지난 10월 19~20일에 라스베이거스 최대 보안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160명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며, 많은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과의 만남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GBB는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성령이 체육관에 임했다. 120명의 여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작은 세례용 풀장에서 한 시간 동안 110명의 여성에게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가왔다.”고 나눴다.

GBB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국의 죄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나누고 있다. 이 사역은 교도소 안에 있는 230만 명 이상의 재소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BB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보딘(Jake Bodine)은 “우리는 거의 100만 명의 구원을 목격했으며 그중 1만 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한 재소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이제는 드디어 나를 놓아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수감자는 “정말 놀랍다. 아마도 오늘은 감옥에서 보낸 최고의 날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기독교단체 이프게더링(IF:Gathering)의 창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니 앨런(Jennie Allen)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여행하며 대담하게 회개와 용서를 전파했다. 이번에는 교도소에서 메시지를 전한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단 순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갔다. 정말로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전했다.

앨런은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 교도소 재소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주는 동안 계속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소 전체가 환호하고 뜨겁게 반응했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앨런은 두 군중 사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학과 교도소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GBB와 함께 하는 이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악화... 이슬람 폭력 진원지, 중동→아프리카

지나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차별, 인권침해가 악화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23일 전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ACN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이슬람 폭력의 진원지가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했으며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극단적 폭력에 노출됐다. 또한 기독교인을 적으로 간주해 납치, 성폭력, 강제결혼·개종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기독교인을 투옥하거나 법률로 탄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박해의 중심에 놓인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사 위협과 극단적 폭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아프리카가 거룩한 주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이티, 국내 실향민 1만 명 증가

갱단 폭력 사태로 극심한 사회 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1만 명 넘는 주민이 피란을 떠났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5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주에만 아이티 주민 1만여 명이 수도 안팎에서 활동하는 갱단을 피해 ‘국내 실향민’으로 생활하게 됐다고 추정했다. IOM은 9월 초 기준 아이티에 7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폭력으로 나라를 위협하고 통치하려는 갱단을 꾸짖어 주시고, 이 일이 속히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를 찾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韓, 딥페이크 성범죄 80%가 10대... 대부분 놀이로 여겨

최근 10대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지난달 26일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 474명 중 80.3%가 10대였다. 학생들은 호기심이나 재미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의뢰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가 디지털 기술을 재미있는 놀이로만 여기고,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놀이로 여기며 서슴없이 행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헤치시고 청소년들에게 진리가 들려져 죄를 죄로 여기며 의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세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GPNEWS]

4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2024. 10월 1일 ~ 11월 29일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몰월 이십오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느헤미야 6:15-16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기간 2024년 10월 1일 ~ 11월 29일 중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은 제외)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종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도24-365 홈페이지, 010-9440-4365 (느헤미야 담당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24-365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로 거룩한 나라 열망하는 200만 한국교회... 10.27연합예배 한반도에 울려 퍼져



조직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과 최근 동성 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올해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에 진행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현장참여 110만 명, 온라인 참여 100만 명을 넘어서는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성도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며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의 세속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국 곳곳에서 서울 시청 앞과 여의도 집회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남대문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대로와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집회장과 인근도로는 앉고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빼곡했다. 이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성도들의 참여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집회기록을 남기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삼상 11:14)를 주제 성구로 진행된 이날 연합예배는 공동대회장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이사장)와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함께 개회를 선언하자고 제안, 한목소리로 "한국교회 하나되어 200만 연합예배 개회를 선언합니다."를 외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이날 예배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김 장로는 "국가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등에는 수천 달리의 빛을 지고, 미래 세대는 그 허리가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오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라며 동성애 악법과 마약 중독, 낙태, 저출산, 이념 전쟁, 의료대란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김양재 목사(좌)와 서울광장의 연합예배 현장. 조직위원회 제공

첫 메시지로 나선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응답하소서'(왕상 18:36)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 이후, 열한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의 기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차례로 등단한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는 '돌이켜 살아나라'(겔 33:11)는 제목의 설교에서 "80년대는 산악제한으로 낙태가 '악의 평범성'으로 받아들여져 죄의식 없이 낙태할 시기에, 말기 암으로 시한부생명을 선고받은 남

편이 한때 산부인과 의사로 죄의식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데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낙태를 막아내고, 하나님은 남녀의 연합인 결혼과 가정으로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를 반복하며 깨어진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앞장서 온 김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지난 7월의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준다는 것은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것인데 이는 사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판결,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사생아 비율은 4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2%밖에 안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가운데 매춘, 사촌 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 5가지 분야를 모두 금지하는 나라이



국에서 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영국 윌버포스아카데미)는 '영국으로부터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영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유산을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태아를 죽일 권리를 법으로 지정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혐오라는 이름의 굴레를 씌워 처벌하고 거리 전도자는 감옥에 갇히고 직장에서 성경을 주거나 기도를 해주면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나라로 바뀌는데 25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만약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모든 것이 빨리 이뤄지는 이 나라에서 불과 2-3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기 때문이며 이러한 음란과 쾌락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희망"이라며 "이러한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신분으로 참가한 박애린(고2) 양은 "얼마 전 연합예배 반대 성명을 낸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가 현행 교과서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며 "이미 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또래 학생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동성 커플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양은 "저는 크리스천으로 이 성경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이날 사회자

의 인도에 따라 침묵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일런스 피케팅(침묵시위)'을 펼치며, 조직위 측이 준비한 손피켓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뜻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날 조직위원회와 참석한 200만 성도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했다.

선언문은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회의 회개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의를 담았다.

결의는 ▲생명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하고 ▲자유의 나라를 위해 모든 국민이 신앙,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창조의 나라를 위해 사회의 전 영역의 역동성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영적 도약에 참여하고 ▲기적의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 갈등과 세대간의 단절, 지역간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해소되도록 교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등의 의지를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100만 성도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해 동성결혼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공단의 위법한 업무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거나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판결을 하지 말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을 중단하며 ▲초·중등 교과서의 동성애 조장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건강하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10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초교파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끝난 후 질서정연하게 해산했으며 조직위 측의 안내대로 모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가며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의대로와 국회의사당 앞 대로 한켠을 가로막고 마련된 집회장에서 참가자들은 1974년 엑스포로 대회 등을 떠올리며 간간이 가랑비가 떨어지고 인터넷 회선장으로 대형전광판을 통한 중계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고 기도하며 대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GNNEWS]



▲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메인 무대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조직위원회 제공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한 조평세 박사 (1776연구소 대표)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해 한 걸음씩 걷다 보니 오늘 여기에 이르렀네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보수주의 자료를 보급하는 1776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회개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회복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자는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청년위원장을 맡아,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 아니고, 어린이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다니 놀라운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로 12살이었던 1995년 6학년 여름방학 때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계기는 2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윤석전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거든요.”

12살에 어린이 선교사로 출로 인도행

-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초등학교 생을 선교지에 보내셨네요.

“선교에 매우 헌신적인 부모님 슬하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이 병원 건물 3층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셨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례적 선교사님들 방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교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무렵 아프리카, 동남아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2학년 때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하늘에 쌓은 상급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에 가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귀엽게 보셨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계속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저에게 어린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6학년 초에 파송을 받게 됐어요.”

- 어린이 선교사라는 본인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부모님의 결단도 대단하셨네요.

“드디어 1995년 6월 13일, 인도 캘커타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인도로 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선교지는 아프리카였거든요. 슈바이처 박사나 데이비드 리빙스톤 전기를 읽으면서 무조건 아프리카, 문명이 없는 오지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제가 갈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인도라는 곳을 소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시티오브조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인도 캘커타가 배경이었어요. 영화 속 인도 상황은 정말 열악했어요. 인도 캘커타 정도면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밑바닥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또 다른 확신을 얻은 것은 타임 잡지였어요. 6월 잡지 제목이 ‘세계 최악의 도시 캘커타’였어요. 캘커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 어린이 선교사로 이런 확증의 과정을 겪으셨군요. 인도에서 삶은 어땠나요?

“여름방학에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 도착했어요. 현지 선교사님께 저를 맡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떠나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콜레라인지 어떤 수인성 질병에 걸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되고 꼭 잡혀 있는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어디 있냐. 나는 선교사인 데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식당 물을 몰래 마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설사와 고열을 앓으며 정신을 잃었던 거죠. 열이 43도까지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나요. 그때 부모님이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침대를 붙잡고 ‘나는 남겠다. 부모님은 가시라.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 주셨으니 나를 잊어버리시라.’고 말

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저를 놔두고 떠나셨다고 해요.”

- 도착하자마자 혹독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렇게 5년 간 인도에서 지냈어요. 처음 3년 정도는 선교사님들 집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때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좀 모이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방학 때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죽음의 집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다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거나 여러 사정이 생기면서 마지막 2년은 현지 학교 선생님 집에서 하숙했어요.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는데, 선생님은 칼리 동상을 모시는 방에서 저를 머물게 했어요. 캘커타의 신인 칼리는 파괴의 신이고 남함을 조장하는 여신이에요. 칼리 손에는 머리가 하나 들려있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해요.



① 어린 시절 전도하고 있는 모습 ② 인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
③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조평세 박사 제공

여성에 대한 억압을 못 이겨서 남편을 죽이고 그때부터 신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신이 됐다는 유래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가족은 매일 저녁 칼리 동상 앞에서 향을 피워놓고 주문을 외는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저는 그곳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청소년기, 인도에서 홀로서다

- 아직 예민한 청소년 시기인데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여전히 향연기가 뿌연게 있고, 피로 시뻘건 동상을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사춘기였으니까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동상이 살아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앞에서 누워서 자면서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렸어요. 저에게는 3년 동안 선교사님들에게 받았던 훈련을 실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방으로 끌어당겨서 밤마다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한 훈련이었다고 생각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죠.”

-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네요.

“인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과정을 마쳤을 때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올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선교훈련학교들을 찾아보았지만 미성년자인 저를 받아주는 학교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도와 학제가 같은 영국에서 2년 동안 고등학교를 마치고 2003년에 영국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2001년 9.11테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뉴스였지만 영미권에서는 정말 큰 문명적 충돌 사건이었어

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프리카가 선교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인도가 선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사실상 더 열악하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게다가 북한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 한국인이자면 1차적으로는 북한을 선교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북한이 가장 열악한 선교지임을 깨달아

- 어떤 기억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선교지 보내달라고 조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에 저를 데려가서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느 선교단체와 연결해 성경말씀이나 사영리 복음 등이 적힌 빨간 풍선을 받아다 북한에 보내곤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낱씨 안내 전화를 걸어 그날의 낱씨를 듣고 ‘남동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에게 ‘오늘 갈 수 있어요.’라고 귀뜸을 해드리곤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빨간 풍선과 헬륨가스를 차에다 싣고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바늘이에요. 밤이 되면 아버지는 헬륨가스를 넣고, 어머니는 테이프를 붙이세요. 부풀린 빨간 풍선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시면 저는 바늘로 구멍을 한 번 뚫고 날려 보내요. 구멍을 안 뚫으면 풍선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중국 만주에 가서 떨어져요. 그때 부모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 풍선을 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풍선을 만진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면서 날려 보내라고 하셨어요. 이 풍선을 쬐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었던 이 기억이 강철환 씨 수기를 읽고 생각난 거죠. 내가 했던 일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었구나. 나는 선교사를 하겠다고 아프리카를 가겠다, 인도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나는 어린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부터 북한 선교사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G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조평세 박사 제공



선교 통신

태국 치앙마이 100년 만의 홍수... 도움의 손길 절실

태국 북부 중심 도시 치앙마이는 100년 만의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5일 치앙마이를 가로지르는 뽕강의 강 수위가 5.3m로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시내 주



▲ 홍수로 침수된 치앙마이의 마을. 오영철 제공

요 지역이 침수됐다. 평소 100m도 안 되는 뽕강이 넘쳐 강 주위 약 2km는 1m 내외의 침수지역으로 변했다.

중소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이 홍수로 인해 약 3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복구에는 앞으로 수개월 정도의 시간과 많은 재정 및 장비가 필요하다. 치앙마이에 있는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로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도 피해 입어

100년 만의 홍수로 치앙마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 경험하는 충격이었다. 원인은 좁은 강폭, 삼림자원 부족 등도 있지만 기상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가 3일 동안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홍수는 규모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태국 기상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내전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인 미얀마도 여러 곳에서 홍수가 발생



▲ 홍수로 침수된 태국 치앙마이의 모습들. 오영철 제공

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미얀마군의 공격으로 제한적인 농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충해와 홍수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존을 위

협하고 있다. 태국은 국가적 경보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가동하고 있어서 치앙마이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는 3명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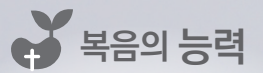
만 미얀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미얀마군이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군기 등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등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다.

우리도 KGAM 팀의 선교 자산인 선교사 자녀 기숙사 '푸른 초장'이 침수된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접근이 가능했고, 이후 4일 동안 대청소를 했다. 성실한 실로암 신학생들과 좋은 이웃들 그리고 팀원들의 지원을 통해 급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복구 지원은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홍수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GPNEWS]

태국=

오영철·김보순 선교사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

사랑하는 자여! 기쁨의 원천이신 분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욱 기뻐한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침상에 누워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을 때가 조만간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노하신 하나님 면전에 끌려가는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행복을 향유한다면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할 것은 세상에 도무지 없다. 죄 사함을 통해 얻는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 닦힐 수 있는 어떤 슬픔이라도 압도하고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슬픔의 우두머리가 제거되었다. [GPNEWS]

'내 주께 굴복하라'
(C.H. 스펔전)에서 발췌

김관모 목사(주영광교회)

독자편지

신문 통해 열방 상황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 글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시작됐다. 덕분에 처음에는 많은 부담감이 물려왔다. 현재 나의 처지가 교회 사역보다는 일터 사역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고 이와 맞물려 복음 전도를 등한시하여 신문을 많이 쌓아놓고 있던 터라 내심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동안 복음기도신문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그동안 뿌려졌던 신문이 누군가에게는 전달되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감사가 있었다.

그동안 복음기도신문에 담긴 복음의 증인들의 삶과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신앙의 여러 여정에서의 환란과 고난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증인들의 이야기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보게 하였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이 어떤 농도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지 못했다면 나 또한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히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삶에 매여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경건한 모양으로 대

처하며 외식하는 자처럼 살았을 거란 확신이 든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들의 주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되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갈수록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지역교회로서 부흥을 꿈꾸고 개척하였건만 함께 할 지체들이 없는 이때에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교회의 현실은 영혼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도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증인들의 이야기

또 복음기도신문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기쁨이 크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빠르고 많이 접하는 시대에서 신문이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신문을 받아본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조만간에 현장에 복귀하여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 된다. 상업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신문이라는 독특성이 세속화되기 쉬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문이 얼마나 귀한 신문인가를 알게 된다. 이런 일에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GPNEWS]

황과 현재의 심각한 영적 상황을 보면서 마냥 이런 교회 현실 앞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간구로 기도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기도신문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11)

나를 향한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다

사랑하면 그 상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만남을 위해 드는 대가 지불이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않다. 사랑이라는 에너지 때문이다. 거듭난 이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제 사랑할 대상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된다. 나를 사랑하던 에너지가 주님을 향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빠지고 죄를 사랑해서 멸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진리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

리 영혼의 본성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땅에 속했던 기준이 하늘의 기준으로 바뀌고, 나 중심의 관점이 예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고, 불의와 거짓을 좋아하던 사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던 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은 달라진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까지 바꾸면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과 살아있는 사랑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을 지치지 않게 이끌어간다.

복음이 우리와 교회를 이렇게 새

롭게 할 수 있다. 복음을 만나 거듭난 생명으로,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직분만 올라가고 신학 지식만 쌓으면 괴물 같은 교인이 된다.

C.T. 스테드의 고백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의 지



일러스트=A.I. 제작. Micjourney

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보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

음이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아멘.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극동방송, 채널과 함께하는

제52회 English Mission Camp 2025

GVCS가 인증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 국내 최초 원어민 영어 캠프를 시행한 글로벌선진학교(GVCS)주최
-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실력있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 영어연설문 발표, 영어 노래 / 수학 배우기, 영어 드라마 등 다양한 영어체험학습
-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속삭이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기간 1기 : 2025. 1. 4.(SAT) ~ 1. 18.(SAT)
2기 : 2025. 2. 1.(SAT) ~ 2. 15.(SAT)

장소 GVCS 문경캠퍼스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9학년(중3) 100명 선착순 (1기, 2기 모두 참가가능)

참가비용 한 기당 200만원

신청마감 2024년 12월 25일

신청문의 전화 / 문자 010-7929-0091, 010-7409-0091

입금계좌 국민은행 609301-04-292087 사)글로벌선진청소년연합회

2024*SEMC

QR코드 입장 신청서 바로가기

GVCS 문경캠퍼스

GVCS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사단법인 글로벌선진청소년연합회

입학 상담 1588-9147 www.gemgem.org

후원 febc 극동방송 channel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놓으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계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사 55:3)

지난 겨울, 한 집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붙들게 된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동안 잘 인식을 하지 못했던, 살고 싶은 목마름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의 교육선교사로 복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직업이 주어졌지만, 정말 나의 영혼이 이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나고 있다고, 이 복음이 정말 충분하다고 힘 있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학사 일정을 따라 아이들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휴가 기간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음란과 세상의 쾌락에 빠지곤 했습니다. 때마다 회개하며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 방법으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잦은 패배에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렇게 단지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일러스트=고은선

것에 안주하며 정작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할 무렵, ‘창조주와 시간을 보내라.’는 한 책의 내용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고, 제 가치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그리고 휴식’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생각 같았지만, 이 생각은 허락된 순종의 걸음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면 쉬어야지. 목상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의 씨름이 끝나면...’ 조건을 달아두고, 보상으로 쉬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현재의 삶에는 늘 조급함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주님의 말씀보다 관계의 전략에 더 관심을 기울이

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휴식을 취해야 할 밤에 불필요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다 늦은 시간에 자고, 맥없이 아침을 시작해,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결단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주님이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후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 2가지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한 애플리케이션(앱)의 도움을 받아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필요한 앱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세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 앱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과 달리 큰 자유가 임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카톡, 밴드 사용 외엔 자연스럽게 하루에 휴대폰을 만지는 터치 수가 줄어들게 됐고, 이는 곧 시간과 에너지의 비축, 계획적인 생활, 이른 취침과 기상, 주님과와의 계속되는 교제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다 마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으로 불렀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식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순간마다 주님을 간절함으로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제게 바라셨던 것은 ‘당신과의 끊임 없는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잊지 않고 삶의 곳곳에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GPNEWS]

구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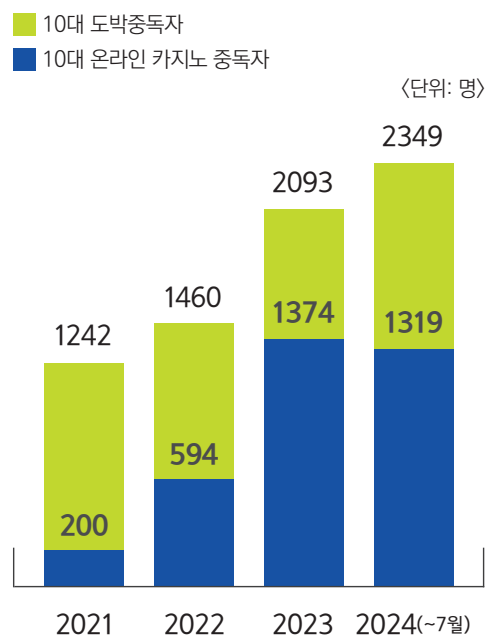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한국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 10대 청소년 매년 증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자 수가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 2349명으로 벌써 지난해 이용자 수를 넘었다. 특히 10대의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가 크게 늘었다. 2021년 10대 도박중독자 중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는 1242명 중 200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1460명 중 594명, 2023년 2093명 중 1374명, 올해 7월 2349명 중 1319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박중독 치유서비스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고 있는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이다.

10대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이용 추이



〈단위: 명〉

〈자료: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도 |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 분별없이 휩쓸리는 다음세대를 진리로 깨우사 어리석은 행실에서 건져 주시고, 만족하지 못할 재물과 여러 정욕과 행락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오게 하소서.

[G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탈북민들, “러 파병 北 병사들, 최소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좋아할 것”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주민과 한국 거주 탈북민 사회에서는 “최소한 배불리 먹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 나은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5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식에 한국 내 탈북민과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북한보다 나은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전했다.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은 지난 24일 RFA에 “파병된 군인들은 식량 걱정이 줄어들어 북한에 있는 것보다 만

족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북한만큼 군 보급이 엉망진창인 곳이 없지 않나. 러시아는 최소 식품 쪽으로는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고기도 좋고, 달걀도 좋고.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재평 회장은 실제 전장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목숨의 위협보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해외로 나간다는 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자부심이 있다. 본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잘 먹고, 전투라는 것도 해본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북한에서도 퍼지고 있다.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부모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자식을 걱정하지만, 일반 주민 사이에서는 “그래도 러시아에 나가면 배고픔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의

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민 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한에서 약 10년 동안 여군 장교로 복무했던 탈북민 김단금(비단금TV) 씨는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파병을 ‘입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오히려 자진해서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만약 본인이 아직 군대에 있었다면 당연히 파병에 지원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도 | 전장에서 죽을 수 있는 두려움보다 지금 못 먹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워 러시아의 파병을 자진했을 북한군 병사들이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파병되어 죽음의 위협 앞에 선 북한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구하자.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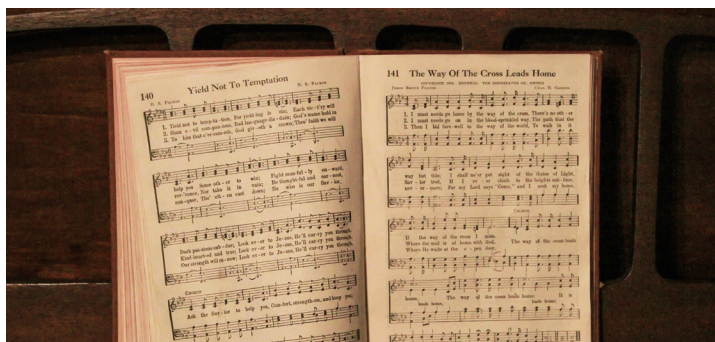
“부족해도 멋과 맛을 내는 건 못갖춘마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의 악보를 찬찬히 들여다보곤 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익히게 된 음악 기초 이론들이 있어 습관처럼 악보를 살펴 보곤 했다. 찬송가는 4성부로 되어 있어 당시 나로서는 읽기가 어렵기도 했다. 어리고 단순한 생각에 빼곡한 음표들 속 침표는 찾아 보기가 ‘참 어렵구나.’ 하며 작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악보를 넘겨 보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찬송가에 못갖춘마디의 곡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펼쳐보면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못갖춘마디의 곡으로 시작된다. 그외에도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등 셀 수 없다. 못갖춘마디란 말 그대로 곡의 첫마

디와 끝마디가 박의 수를 갖추지 못한 곡을 뜻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불완전소절(不完全小節)이라고도 한다. 또 첫 박의 강세가 생략되어 여린 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린내기라고도 부른다.

가사가 있는 곡일 때, 가사의 강세와 높낮이를 악보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므로 음악의 강세와 언어의 강세가 일치할 수 있도록 못갖춘마디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못갖춘마디 곡의 악보를 보면 셈과 여림의 규칙에 따라 일정하게 묶어 놓은 각 마디마다 정해진 박자표에 따라 일정하게 박자를 갖추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못갖춘마디와는 달리 못갖춘마디는 첫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박자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둘을 합하면 정해진 박자표에 따라 갖춰진 마디가 되는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완전하게 갖춰지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 허물 많은 내 모습



Unsplash의 Mick Haupt

과 실수 많은 내 삶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여린내기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한다. 처음 복음을 만나고 많은 생각들로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나는 나를 더 다듬고 잘 갖추어 준비되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신 27:6)라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다. “다

듬지 않아도 돼. 아니 다듬은 돌은 오히려 부정해. 모나고 부족해도 괜찮아. 못갖춘마디, 여린내기여도 괜찮아. 못갖춘마디가 가질 수 없는 멋과 맛을 내는 건 못갖춘마디, 여린내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게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주님께 헌신했고 그 이후 주님을 따른 지수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못갖춘마디와 같다. 날마다 부끄럼투성이다. 그러나 나는 여린내기여서 낼 수 있는 소리는 매우

작지만, 강박을 돋보이게 하는 여린박처럼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가장 못갖춘마디, 여린내기와 같은 나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만 빛나신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첫 번째 마디조차 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이 견고히 세워진 교회는 걸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으로 충분한 영광스러운 예수 교회임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오늘은 못갖춘마디의 찬양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그 안에 주님과 교회 된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듯하다. [GPNEWS]

이혜진 선교사



내가 뿌린 씨는 전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지난 9월 중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달 저희 이즈미교회에

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초대를 받아 교회의 영어 키즈캠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작은 캠프였지만 매주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키즈캠프에 참여하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꾸준히 몇 년 간 이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씨를

꾸준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선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에게 그런 질문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크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교회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성장이 없는 것 같지?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제가 원하는 변화나 열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끊임없이 말씀과 증인,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했

을 때,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한 영혼을 보게 됐습니다. 최근 이즈미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손길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뿌린 씨는 내 전도지나 전단지 그리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선하신 하나님을 맞보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GPNEWS]

지민아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본 삿포로의 ‘유니온교회’. 지민아 제공

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니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성도는 없었지만, 선교사님은 키즈캠프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교

뿌리고 계시는 증인들을 보는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도 자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교회를 다녀오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 보면서도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10. 9 ~ 10. 29 (가나다 순)

개인

권태선 김국남 김남철 김명순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혜신 박성규 신혜경 안석문 이은주 이인선(레마코) 이종훈 이향은 정옥영 정호진 조복형 최근희 최내영 무명

교회 및 단체

고현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선한목자교회 스테파니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교회 헬스비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